

## 교합 붕괴 환자의 수직 고경 거상을 동반한 전악 보철 수복 증례

유현진 \*, 강동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철학 교실)

전악에 걸쳐 광범위하게 교합이 붕괴된 경우 수직 고경의 감소 및 교합 평면의 부조화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엔 수직 고경을 거상시키고, 거상된 고경에 맞게 조화로운 교합 평면의 재형성이 요구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57세의 남자 환자로서 전치부의 심미 문제와 저작의 불편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초진시 상악에서는 구치부의 정출, 전치부 절단부 쪽의 파절을 볼 수 있었고, 하악에서는 기존의 양측성 국소의치 인공치의 심한 교합면 마모를 볼 수 있었다. 최대 교두 감합위 상태에선 절단 교합, 상/하악 정중선의 불일치, 교합 고경의 감소 및 좌·우 교합 평면의 부조화가 보였다.

문진 결과 이 환자의 경우 어떠한 악습관에 의해 상기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보철의 결과 현재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먼저, Lucia jig를 이용 기존의 program된 교합관계를 제거하고, Bimanual technique을 통해 CR을 recording하였다.

Hanau modular facebow를 이용 교합기에 상악 모형을 부착시키고, C·R record를 이용하여 하악을 부착시켰다. 교합기 상에서 수직 고경을 적정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이 고경에 맞추어 조화로운 교합평면을 갖게 wax-up을 시행하였다. 이 wax-up을 바탕으로 provisional restoration을 제작한 후 환자의 구강내에 장착하였다.

이 상태로 3개월간 follow-up을 시행하였다. follow-up 기간 중 증가된 수직 고경에 환자가 불편을 호소했고, 상악 전치부의 심미성의 문제를 제기해 provisional restoration을 조정하였다.(provisional restoration장착 2주후 follow-up시) 그 후론 follow-up시에 환자가 원할한 저작을 보였으며, 측두악관절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최종적인 치아 삭제와 인상 채득하고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심미적, 기능적으로 양호한 임상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